

중앙지검 첫 여성 차장 이노공, 세종서 변호사로 '법조 2막'



법조인 동정

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첫 여성 차장검사를 지낸 이노공(51·사법연수원 26기)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'법조 2막'을 열었다.

법무법인 세종은 17일 “이 전 지청장이 16일자로 합류했다.”고 밝혔다. 이 전 지청장은 지난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, 대검찰청 형사2과장,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장 등을 거쳐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릴 옮기면서 첫 중앙지검 여성 차장검사를 지냈다.

검사장 승진 후보로 거론되던 이 지청장은 이후 지난해 여름 인사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임명된 뒤 올해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이 난 뒤 사의를 표명했다.

세종 측은 “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이 전 지청장의 영입으로 형사그룹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.”고 밝혔다. 세종은 지난해 김진태(68·14기)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호철(55·26기) 전 고양지청장, 박기태(45·38기) 전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, 경찰대 출신 이영재(41·변호사시험 8회) 변호사, 성기범 전 대검 과학수사 포렌식 분석관 등을 영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형사그룹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.

(출처/이데일리)